



오늘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오늘의 주요 기사

- 2 2026 달력 사진 이야기
- 3 신앙사경회
- 4 성탄가족예배
- 5 성탄음악예배

- 6-7 유아세례자 기도
- 8 청소년숲 졸업여행
- 9 캠퍼스 이단
- 10 청년부 노숙인사역

- 10-11 청년부 마굿간카페
- 12-13 사임인사 / 부임인사
- 14 희망상자나눔
- 14 길가예교회 20주년예배

저무는 시간, 새 아침을 향한 기도

주님,
올해를 변동불거(變動不居)라 불릴 만큼
잠시도 멈추지 않고 요동치던 한 해를 지나
이제 2026년의 문 앞에 섰습니다.
숨 가쁘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오늘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흔들리는 자리에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더 빠르게 갈라졌고,
다름을 무시하며 생긴 차이는 곧 벽이 되어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밀어내는 언어가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부와 기회의 양극화뿐 아니라 믿음마저 갈라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 또한 어느 편인가 서서 편을 나누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 분별하는 마음을 주소서.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속에서 말씀과 설교,
신앙 콘텐츠에 더 쉽게 접할 수 있었지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삶의 증거로 살아내는 데에는 주저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지식으로만 쌓지 않게 하시고 화면 너머의 감동이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말씀을 ‘아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삶으로 믿음을 증언하게 하소서.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와 가나안 성도라 불리는 이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현실 속에서 정죄보다 용납을,
규정보다 경청을 선택하게 하소서.
신앙의 문턱을 높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백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잃어버린 마음을 품게 하소서.

신앙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져야 하기에,
자녀 세대가 교회보다 세상을 먼저 배우는 이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 있는 복음의 첫 교과서가 되게 하소서.
가르치기보다 먼저 사랑하고, 요구하기보다 함께 걸어가며
믿음을 대물림하는 어른이 되게 하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저희에게 맡겨 주소서.

이제 2026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더 강해지기보다 더 깊어지게 하시고,
말로만 앞서기보다 행동으로, 삶으로 더 성실히 살아내게 하소서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
다가올 날들도 저희의 길이 되어 인도하여 주소서.
어둠이 아닌 소망으로, 불안이 아닌 신뢰로 새해의 첫 발걸음을
담대히 내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주님의교회
성지 문화 달력

드론으로 하늘에서 기록한 성지 순례의 현장

2026년 주님의교회 달력은 단순한 일정 안내 도구를 넘어, 독자들을 이스라엘 성지 순례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입체적인 문화 달력'입니다. 이 사진을 제공해주신 박용우 목사님으로부터 사진을 찍게 된 배경 이야기와 달력 속 특별한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본 성지, 그 배경 이야기와 비전

2026년 달력의 비전은 2018년 7월, 이스라엘 정부 관광청 초청으로 CTS-TV 다큐멘터리 '성경은 역사다' 촬영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숭실대학교 교수직 은퇴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성지를 '하늘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즉 드론 촬영에 도전해야겠다는 강한 소명을 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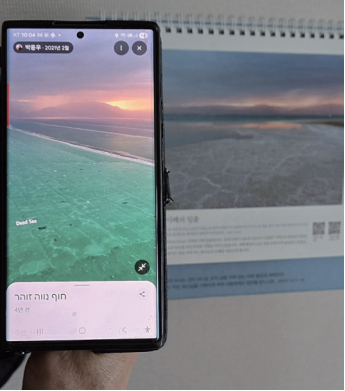
적지 않은 나이에 드론 조종을 익히는 과정은 쉽지 않았으나, "드론을 배워 성지를 잘 촬영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관광청의 협조 덕분에 일반 촬영이 엄격히 금지된 이스라엘 박물관 실내 유물 촬영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조교는 Insta360 카메라로 지상 360도 촬영을 담당했고, 저는 드론을 날려 공중에서 성지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첫 경험 이후, 저는 본격적인 드론 촬영을 위해 렌터카를 몰고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까지 홀로 다니며 성지 구석구석을 깊이 있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달력 속 성지를 더블 QR코드로 생생하게 체험하다

이번 달력에는 지난 수년간 이스라엘의 여러 성지를 직접 촬영한 드론 사진이 월별로 실려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주요 성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성지	비고
1월	네브 소알(Neve Zohar)의 사해 일출	소돔 고모라 지역 (우기 속 극적인 촬영 성공 경험)
2월	엔게디(Ein Gedi)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곳
3월	예루함(Yeruham)	하갈이 아이를 위해 통곡했던 곳
4월	텔 므깃도(Tel Megiddo)	이스라엘의 주요 격전지
5월	사마리아(Samaria/Sebaste)	북 이스라엘의 수도 (여름 궁전)
6월	이스라엘 평야(Yizreel Plain)	북 이스라엘의 수도 (겨울 궁전)
7월	헤로디움(Herodium)	헤롯 왕의 대표 요새
8월	팔복산(Mt. Beatitude)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치신 곳
9월	가버나움 회당(Capernaum Synagogue)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심지
10월	고라신 회당(Chorazin Synagogue)	갈릴리 지역 주요 회당
11월	쿠르시(Kursi), 거라사	군대귀신 들린자가 고침 받은 곳
12월	쿰란(Qumran)	사해사본이 발견된 지역



달력의 특별한 기능: 더블 QR코드

2026년 달력의 가장 큰 특징은 매월 사진 하단에 있는 두 개의 '더블 QR코드'입니다.

드론 영상 QR을 스캔하면 유튜브에 게시된 해당 성지 지역의 드론 영상을 고화질로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장소를 영상으로 생생하게!)

360도 VR 사진 QR을 스캔하면 구글 지도에 업로드된 해당 지역의 360도 VR 사진이 위치와 함께 열립니다. 마치 지금 성지 현장에 서 있는 듯한 현장감 있는 체험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문화성경과의 연동과 글로벌 비전

이 드론 영상 및 360도 사진 링크들은 이미 2007년 숭실대학교 개교 11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찬한 온라인 한글 문화성경과 모두 연동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성경에서 지명이나 주요 단어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360도 사진과 위키피디아 사전이 연결되어 성경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박용우 목사 / 2교구



영문 NIV 성경 링크 연결 프로젝트 동역자 모집

저희는 이 귀한 성과를 한국을 넘어 전 세계와 나누고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영문 NIV 성경에 저희 문화성경의 지명 및 인명 링크 주소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독자에게 국한되었던 성지 자료를 전 세계 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매우 중요한 글로벌 사역입니다. 현재 일부 작업은 진행되었으나,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들이 많아 추가적인 봉사가 절실합니다. 영어 성경(NIV)에 익숙하며, 이 복사-붙여넣기 작업에 동참해 주실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ywpark2003@naver.com, 010-2508 -9234

2025 전교인
신앙사경회

주님에게서 온 사랑, 주님께로 향한 순종

지난 12월 9~10일 이틀간 영락교회 김운성 위임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전교인 신앙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주님에게서, 주님께로”라는 주제 아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다시 삶의 자리로 불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은 내가 만들어 내는 결단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먼저 시작되는 은혜임을 깨닫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숯불 곁에서 시작된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는 장면은 익숙하지만, 이번 사경회에서는 그 장면이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 누구도 ‘누구나’ 묻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구워 조반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와서 먹어라?” 목사님께서서는 이 장면을 두고 **사랑은 언제나 요구보다 먼저 다가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죄책감에 눌린 베드로를 회복시킨 첫걸음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리로 다시 불러들이는 초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을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로 판단해 보곤 합니다. 기도를 빠뜨린 날, 마음이 식어 있던 시간, 믿음보다 눈앞의 현실이 앞섰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스스로 뒤로 물러서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그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먼저 조반을 차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설교보다 먼저 조반을 먹여 달라”는 기도

목사님 말씀 중에 신학교 시절부터 해오신 기도 한 가지를 나누셨습니다. 목회자에게 설교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큰 부담인데, 그 부담 속에서 늘 이렇게 기도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잘하기보다 먼저 **제가 은혜를 먹게 해 주십시오. 제게 조반을 먼저 먹여 주십시오.**” 이 고백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라 깨닫게 했습니다.

은혜를 먹지 못한 채 책임만 지려고 하면 신앙은 쉽게 지치고, 사랑은 의무로 변해 버립니다. 첫째 날 말씀에서의 **‘주님에게서 온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결단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먼저 흘러오는 은혜**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은 ‘따름’으로 이어진다

둘째 날 전하신 **‘주님께로 향한 순종’**의 말씀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남는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감정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주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앞날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끌려 가는 삶과 마침내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

라 순종의 방향이라는 사실이 선포해지는 순간입니다.

섬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뭐 그렇죠?”

설교 중 소개된 화도교회의 목사님을 예화로 한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목사님께서 화도에서 증도로 가는 좁은 바닷길에서 우연히 만난 섬 마을 목사님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소수의 인원으로 모이는 작은 공동체였고, 목회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한 권사님이 그 목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죠....”** 이 짧은 네 글자 속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눈물과 고독, 그리고 묵묵한 순종이 모두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늘 화려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걷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다 문득 요한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은 오래 살며 복음서와 서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길로, 베드로는 순교의 길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모양은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주님께로 향한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비교의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열매와 내 삶을 견주다 보면 감사보다 낙심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길, 다른 속도, 다른 방식의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받은 사랑, 오늘의 순종으로

이번 사경회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이끅니다. **‘숯불 곁에서 다시 받은 사랑은 길 위에서 따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랑은 주님에게서 시작되고, 순종은 그 사랑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김운성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너는 어디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라며 조용히 초대하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비교하지 않아도, **주님이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의 순종으로 사랑을 올려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사랑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질문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나를 따르고 있느냐”**입니다.

함글함글



유유청
성탄가족예배

하늘의 기쁨이 가정으로 흐르다

지난 12월 21일(주일) 오후 1시, 주님의교회 대예배실에서는 ‘하늘의 기쁨, 가정의 기쁨’ (누가복음 2장 14절)을 주제로 2025 성탄가족예배가 드려졌다. 유소년들이 주관한 이번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영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세대가 주인공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세대를 잇는 성탄, 가정이 중심이 되다

이번 성탄가족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늘의 기쁨이며 동시에 가정의 기쁨”이라는 신앙고백 위에 기획되었다. 유아숲, 유소년숲, 청소년숲, 총 3개 분과 9개 부서가 참여해 세대별 특성과 신앙고백을 담아 예배를 함께 만들어갔다. 단순한 발표회가 아닌, 가정이 중심이 되어 세대와 지역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예배는 AI 영상으로 구성된 오프닝으로 시작되었다. 어린이 요한이와 지인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을 여행하는 이야기 형식의 영상은, 성탄 이야기를 오늘의 시선으로 풀어내며 예배의 문을 열었다. 영상과 현장 찬양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성탄의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예배 가운데 스며들었다.



아이들의 찬양으로 채워진 성탄의 이야기

이날 예배에서는 연령대별로 준비된 찬양과 말씀 암송이 차례로 이어졌다. L-KIDS 찬양팀의 밝고 힘찬 찬양을 시작으로, 영아부는 ‘누구든지 영아부에 나오면’, ‘예수님의 생일파티’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순수한 고백으로 표현했다. 유아부는 ‘반짝 반짝 예수님 별’, ‘예수님은 나의 왕’을 통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고, 유치부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암송과 찬양으로 성탄의 의미를 또렷이 전했다.



이어진 유소년숲 순서에서는 EM,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각기 다른 색깔의 찬양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EM

어린이들의 찬양은 장엄한 울림으로 예배의 깊이를 더했고, 초등부와 소년부의 고백은 다음세대가 믿음 위에 자라고 있음을 확인하게 했다.



청소년숲의 찬양 ‘ON OUR WAY + NOEL’은 성탄의 기쁨이 삶의 여정 속에서도 계속됨을 선포하며 예배의 흐름을 이어갔다.



말씀과 축복으로 마무리된 예배

클로징 영상 후에는 김화수 담임목사의 말씀과 격려가 이어졌다. 담임목사는 성탄이 단지 한 날의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 세대를 향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임을 강조하며 다음세대를 축복했다. 이어진 봉헌과 찬송, 축도를 통해 예배는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약 72분간 진행된 성탄가족예배는 무대 위의 아이들뿐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축복하고, 가정이 함께 예배하며,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성탄의 기쁨, 삶으로 이어지기를

이번 성탄가족예배는 단순한 연말 행사나 발표를 넘어, 주님의교회가 다음세대를 어떻게 품고 세워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었다. 하늘의 기쁨으로 시작된 성탄의 은혜가 각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모든 다음세대와 섬김으로 수고한 교사와 스태프, 그리고 함께 예배한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함글함글**

성탄음악예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우리 주님의교회와 온 누리에 울려 퍼진 헨델의 「메시아」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고귀한 향기였습니다. 성탄절 음악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나니,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는 그날의 웅장한 찬양과 성령의 임재가 뜨거운 전율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음악예배를 위해 김형수 지휘자님의 손끝에서 시작된 열정은 살롬 찬양대의 목소리를 타고 주오오케스트라와 브라스 밴드의 웅장한 선율과 만나 우리 영혼을 깨우는 천상의 화음이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후 3시까지 연습실을 가득 채웠던 대원들의 헌신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고단함 속에서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입가에 띠었던 그 밝은 미소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동방박사들이 설렘과도 같았습니다. 이 거룩한 잔치를 위해 살롬찬양대 임원진과 봉사부의 정성껏 준비해 주신 간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친 대원들에 큰 힘이 되는 위로였으며 그 섬김의 따뜻한 헌신이 찬양 속에 녹아들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맺었습니다.

모든 스태프와 봉사자들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오 오케스트라 단장님과 악장님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단 한 장의 악보, 단 하나의 음표에도 소홀함이 없이 마음을 쏟으신 그 세심함이 있었기에 우리 예배는 한층 더 거룩하고 완벽했으며 대원들의 헌신으로 인해 성도들의 메마른 가슴에 성탄의 참된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번 성탄절 음악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 되어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평화가 임하여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더욱 성숙하고 깊은 찬양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 성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의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서정화 장로



성탄음악예배

헨델의 메시아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헨델과 「메시아」

헨델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작곡되던 1741년, 그는 경제적 실패와 건강 악화, 대중의 외면 속에서 깊은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작곡가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확실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헨델은 인생의 깊은 침체기 속에서 이 곡을 작곡했으며, 단 24일 만에 전곡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 작업을 단순한 작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체험으로 고백했습니다. 「메시아」는 화려한 연기나 무대 없이, 독창과 합창을 통해 말씀 그 자체가 중심이 되는 예배 음악입니다.

「메시아」가 들려주는 성경의 이야기

「메시아」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구원의 의미를 성경 말씀 그대로 노래합니다.

제1부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며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고, 제2부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할렐루야” 합창으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제3부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와 성도의 부활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성탄절에 듣는 「메시아」

성탄절에 「메시아」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다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번 음악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예배자로 서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함줄함울

새 생명의 축복, 유아세례를 축하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세례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과 교회가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의 길을 인도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함글함글

곽시윤 아기 (아빠 곽경록 / 엄마 송연화)

- 시윤이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하게 하시고
- 내면이 강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 하나님 나라 주인되게 하소서.

김다빛 아기 (아빠 김지민 / 엄마 김유민)

- 하나님 안에서 몸과 영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하소서.
- 선한 마음과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 아이를 양육하고 지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인내와 사랑을 허락해 주소서.

김소은 아기 (아빠 김원영 / 엄마 이누리)

-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 주님 손에 온전히 소은이를 맡겨 드립니다. 아이를 우리 가정의 위로 삼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김하진 아기 (아빠 김의훈 / 엄마 백승미)

- 세상에 내딛는 매 걸음마다, 숨을 내쉬는 모든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하진이와 항상 함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 굳건한 마음과 명철한 머리로 이 세상에 귀하게 쓰임 받는 영특한 아이로 자라나게 하소서.

남기용 아기 (아빠 남현우 / 엄마 임아라)

-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온 맘과 정성 다해 기도하며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소서.

남다민 아기 (아빠 남택원 / 엄마 이가영)

- 지혜롭고 영육간에 강건한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박성민 아기 (아빠 박창훈 / 엄마 강연주)

- 성민이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주님과 동행하며, 영과 육이 강건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시우 아기 (아빠 박은식 / 엄마 박민선)

- 시우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지혜롭고 온유하며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자라, 받은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 부모에게는 시우를 말씀과 기도, 사랑과 인내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지산 아기 (아빠 박승비 / 엄마 양현정)

-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길
- 밝고 건강하게 커 나갈 수 있길
- 저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신다엘 아기 (아빠 신은총 / 엄마 전영경)

- 다엘이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 평생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 해주세요.



신이안 아기 (아빠 신기영 / 엄마 최서현)

- 이안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욱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도록.
- 온 가족이 경건생활 놓지 않고, 하나님안에서 하나되어 기쁨 때나 힘들 때나 감사하도록.
- 오늘 세례의 은혜를 평생 간직하며, 이안이가 그 이름처럼 깨끗한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안재준 아기 (아빠 안동섭 / 엄마 황규정)

- 재준이가 주님이 주신 이 삶 자체가 행복임을 알게 하시고
-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평생 알게 하옵소서.

이산 아기 (아빠 이종원 / 엄마 김소희)

- 아이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주세요.
-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사랑과 지혜를 부어주사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이연재 아기 (아빠 이용택 / 엄마 허수진)

- 연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 세상 속에서도 진리와 선함을 분별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 저희 부모도 연재를 통해 더 겸손히 배우며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소서.

조예은 아기 (아빠 조제희 / 엄마 서혜림)

- 예은이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며,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 저희도 믿음으로 예은이의 삶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본이 되는 부모로 동행하게 하소서.

신지우 아기 (아빠 신동재 / 엄마 정지현)

- 거룩을 분별하는 지혜와 늘 기뻐 감사하는 입술과 악한 것을 멀리 하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 어디서나 만남의 복과 행통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존경받는 자 되게 하시고
- 받은 사랑 나누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양하연 아기 (아빠 양서진 / 엄마 강세린)

- 하연이의 모든 생애를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 저희 부부가 하연이의 곁에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실천하며, 기도의 등불을 밝혀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이탄 아기 (아빠 이종원 / 엄마 김소희)

-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 주님의 보호와 지혜가 아이와 함께하사, 두려움 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언제나 앞서 행하사, 축복된 여정으로 부모와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채이 아기 (아빠 이준형 / 엄마 김지연)

- 채이가 주님의 사랑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한태이 아기 (아빠 한민국 / 엄마 강민지)

- 지금처럼 누구에게나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태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중등부
중3 졸업여행

추억이 기억되어

팝콘트리 중등부는 지난 12월 13일(토), 중등부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교회에 모여 졸업예배를 드리며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말씀에 앞서 중학생 시절을 어떻게 보내왔는지를 돌아보는 빙고게임을 통해 즐거운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며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함께 기억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이 누구인

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레크리에이션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롯데월드로 이동하여 친구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이기구를 함께 타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3년 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을 나누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모습과 비교해 한층 성장한 중3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기쁨과 함께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중3 학생들이 지금의 '밝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자신을 발견해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찬양 목사 / 중등부

고등부
고3 졸업여행

Re:connect

주님의교회 청소년숲 고등부는 2025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졸업여행은 3년간 입시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달려온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도에 위치한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이후 일정에 대한 기대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행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었고, 박유진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졸업여행의 의미와 방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보낸 3년을 돌아보면, 입시와 성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힘들고 외롭고 좌절되는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심과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은 아닐까?'라는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번 졸업여행은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끊어졌던 관계들을 다시 연결하는(Reconnect)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를 로렘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먹이셨듯이, 고등부 선생님들은 맛있는 바베큐와 풍성한 간식으로 아이들을 쉬게 하고 먹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행에는 20살을 담당하시는 청년부 정지명 전도사님께서 기획과 진행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3 친구들이 청년부로 잘 진급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습니다. 청년부 선생님들 또한 아이들과 호흡하며 프로그램이 더욱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습니다.



이 모든 섬김은 아이들을 쉬게 하고, 먹이며, 회복하게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직 이 말씀이,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삶 속에 경험으로 남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9)



지금까지의 시간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고3 친구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김계원 목사 / 청소년숲

특집
캠퍼스 이단

자유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얼굴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새로운 배움의 장, 더 넓어진 인간관계, 자유로운 시간과 선택권은 청년들에게 큰 설렘을 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기는 신앙적으로도 가장 취약해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틈을 파고들어 대학 캠퍼스 안팎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이단·사이비 단체들이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 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은 여러 차례 총회 결의를 통해 특정 단체와 교리를 이단, 사이비, 참여금지, 경계 대상으로 규정해 왔으며, 한국교회 이단 연구 전문기관인 현대종교 역시 매년 대학 캠퍼스 이단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제 대학생이 되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기도로 보내는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학의 이단들을 정리했다.

함줄함줄

“동아리인 줄 알았다”

현대종교에 따르면, 최근 캠퍼스 이단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종교색을 지운 접근’이다. 과거처럼 교회 간판을 내걸거나 노골적인 전도를 하기 보다는, 동아리, 스터디, 멘토링, 봉사 모임 등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위장한다.

실제로 많은 피해 사례는 “선배가 소개해 줘서”, “동아리 홍보 부스에서 만나서”, “성경 공부 모임인 줄 알고”라는 말로 시작된다. 처음에는 종교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다가, 관계가 형성된 이후 점차 특정 교리와 해석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2025 캠퍼스 이단 현황 _ 현대종교〉QR

캠퍼스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동아리형 이단’ 들

(성경공부, 말씀 스터디로 위장한 신천지 계열) 대학 캠퍼스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형이다. ‘캠퍼스 성경공부’, ‘말씀 연구 모임’, ‘비유로 풀어보는 성경’ 등의 이름으로 접근하며, 처음에는 교단이나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 개인 과외식 성경공부나 소수 정예 강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기존 교회의 성경 해석을 부정하고, 특정한 비유 풀이와 계시록 해석을 강조하며 점차 내부 교리로 이끈다. 예장통합 교단은 신천지를 명백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천지 위장포교 추정단체 리스트(서울 및 타지역)〉QR

(봉사·환경 동아리로 보이는 하나님의교회 계열) 봉사활동, 환경정화, 헌혈 캠페인 등을 앞세워 ‘건강한 기독교 단체’처럼 보이게 만드는 유형이다. 처음에는 성경을 직접 읽기보다 요약된 자료나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점차 ‘어머니 하나님’ 교리를 강조한다.

선한 활동을 통해 경계심을 낮추지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교리를 핵심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정통 기독교 신앙과 분명히 구별된다.

(문화, 체육, 외국어 동아리로 위장한 JMS 계열) 종교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문화, 스포츠, 외국어 동아리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멘토’ 역할을 하는 선배를 중심으로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이후 성경 이야기와 특정 인물에 대한 신격화를 시도한다.

처음에는 종교 모임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장 늦게 정체기가 드러나는 유형으로 꼽힌다.

(선교단체처럼 보이는 유사 기독교 동아리) 캠퍼스 선교, 제자훈련, 영성 훈련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존 교회를 ‘타락한 조직’으로 규정하고 특정 지도자에게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교단이나 교회와의 공식적 연결이 없고, 비판적 질문을 신앙 부족으로 몰아가는 특징을 보인다.

정상적인 기독교 동아리와 무엇이 다른가

정통 기독교 동아리는 소속과 지도체계를 분명히 밝히고, 교회와의 연계를 존중하며, 성경 해석에 있어 질문과 토론을 허용한다. 반면 이단으로 위장한 동아리들은 소속을 숨기고, 단일한 해석을 강요하며, 기존 교회와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든다.

특히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밖에 알리면 안 된다”는 식의 비밀주의는 가장 분명한 경고 신호다.

교회가 떠나보내며 꼭 전해야 할 당부

대학 입학은 신앙을 내려놓는 시기가 아니라, 스스로 분별하며 선택해야 하는 시기다. 이단은 열심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자유와 생명을 준다.

교회는 청년들이 위험을 겪은 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알려 주고 지켜 주는 공동체여야 한다. 떠나는 청년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그리고 올바른 정보 제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캠퍼스에 있는 모든 ‘기독교 동아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별력을 갖춘 청년은 흔들리지 않는다. 진리는 숨기지 않으며, 복음은 사람을 묶지 않는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이 단 교 파 로 고

정명석
(국제크리스찬연합)
2003년 제87회 총회에서 “성경해석, 교회 상위질서, 부흥, 그리스도의 재림”에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 “이단”으로 규정됨.

신천지
(이만희, 무료성경신학원)
1999년 제80회 총회에서 “계시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에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 “이단”으로 규정됨.

다락방전도운동
(류광수)
1998년 제81회 총회에서 “구원론, 기성교회 부흥의 비전, 다락방전도 운동”에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 “사이비종교”로 규정됨.

구원파
(박옥수, 기쁜소식선교회)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개별구원, 회개, 3인교인제”에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 “이단”으로 규정됨.

하나님의교회
(안상홍증인회)
2002년 제87회 총회에서 “교리적 발전, 성경해석의 오류, 재림의 구원론”과 2011년 제96회 총회에서 “안상홍과 장교자 신격화문제, 안상홍과 유물론 주장”에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 “반기독교적 이단”으로 규정됨.

지방교회
(윌트니스리)
1991년 제76회 총회에서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교회론”에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 “이단”으로 규정됨.

통일교
(문선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1971년 제50회 총회에서 “진통자인 신학사상과는 극단적으로 다른”으로 “사이비종교”로 규정되고 이후에 조희에 걸쳐 추가결정이 있었음.

안식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1995년 제80회 총회에서 “구원론, 안식일, 계시론, 영혼영성, 영적지위문제 등”에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 “이단”으로 규정됨.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할 이단 로고

청년부 사랑나눔팀
노숙인 사역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따뜻한 온기가 남기를

지난 11월 30일 주일, 청년부 예배와 모임을 마친 저녁에 서울역 노숙인 사역이 진행되었다. 지난 5년간 매주 서울역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해 온 사역자와 동행하며, 오후 7시 사전 모임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밤 9시에는 준비한 물품들을 정리하고 빵과 음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했다. 각자의 역할을 조용히 확인한 뒤, 밤 9시 30분 서울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역 인근을 돌며 추위 속에 계신 분들에게 빵과 음료를 나누어 드렸다. 어떤 분은 말없이 물품을 받아 가셨으며, 또 어떤 분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역 중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청년들이 돌아가며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렸다. 상황에 따라 갑작스럽게 기도를 인도해야 할 때면 마음 한편에 망설임과 부담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발걸음을 내딛으며 깨달은 것은 '완벽한 준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었다. 길고 화려한 말보다 한 영혼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했다. 사역은 밤 11시경 마무리되었고, 이후 모두가 모여 하루를 정리하며 고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서울역에서의 몇 시간이 각자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청년은 사역 중 노숙인을 위해 기도했던 순간이 이후 일상 속에서도 계속 떠오른다고 나누었고, 또 다른 청년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장 and 삶의 터전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의 현장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서울역'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분주한 일터가, 누군가에게는 반복되는 일상이, 또 누군가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관계의 자리가 바로 그곳일 것이다. 그날 나누어 드린 빵과 음료, 외투와 기도는 그 자리에서 소비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 심겨졌음을 고백하게 된다.



비록 시간이 지나며 그날의 감격은 조금씩 멀어질지 모르지만, 문득 떠오르는 얼굴 하나, 함께 서서 기도하던 장면 하나가 다시 마음을 붙드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준비해 주신 손길들, 현장과 기도로 동역한 사랑나눔팀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친히 일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린다.

정지명 전도사 / 청년부

청년부 글로벌웨이브팀
마곳간 카페

현실이 된, "나중에 예수님 생일카페 하자!"

안녕하세요! "나중에 예수님 생일카페 하자!" 고 가볍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번 <마곳간카페> 팝업을 통해 현실이 되었어요! 무려 350명이 넘는 분들이 이 특별한 자리에 찾아와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글로리웨이브팀은 예배 문화 사역팀으로, 체험 전시와 아트를 결합해 크리스천은 물론 다양한 문화와 배경의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을 쉽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청년부 표어인 "다이렉트 메신저(DIRECT MESSENGER)"로서, 이번 팝업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직접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마곳간카페>를 준비하는 과정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팀원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힘을 모아주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각자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때때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힘든 일정 속에서도 즐겁게 자발적으로 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마곳간카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마곳간카페> 팝업은 예수님이 마곳간에서 태어나신 의미를 되새기며 마곳간 컨셉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일반인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요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평화"라는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굿즈, 럭키드로우, 포토존 등을 통해 방문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현장에서의 반응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정말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생일 카페래",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해요?"라고 하며 반가워하셨고, "선교 단체인 줄 알았는데 청년부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니 참 놀랍네요!" 라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 정말 감사했고, 선교에 대한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마곳간카페> 팝업은 다이렉트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외부에서 실천해 본 첫 경험이었습니다. 팀원과 함께해준 스태프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한 실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지원해 주신 목사님들과 부장 집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교회 여러분, 싸-말-평(싸우지 말고 평화)!

박혜인 청년 / 청년부 글로벌웨이브팀 팀장

청년부 글로벌웨이브팀
마곳간 카페

마곳간 카페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다

올해 봄, 유난히 화창했던 어느 주일 점심 무렵 글로리웨이브 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던진 한마디,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 생일 카페를 해보면 어떨까요?”라는 제안이 마굿간카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에 접어들었을 때, 저희는 이미 고난주간의 ‘십자가 위에서’ 프로젝트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의 ‘MIRRORING’ 프로젝트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연속된 사역으로 팀원들 모두가 어느 정도 피로를 느끼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10월 초, 마감간카페를 위한 첫 회의가 시작되자 예상과는 달리 이전보다 더 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향한 기대 속에서 다양하고 재치 있는 아이디어들이 활발히 오갔습니다.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던 부분은 컨셉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로 고민하던 중 ‘모을’이라는 카페로 장소가 확정되었고, 처음 그 공간을 방문했을 때 느껴진 분위기는 묘하게도 마굿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프로젝트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렇게 ‘마굿간카페’라는 메인 테마를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준비해야 할 것들과 회의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지만, 이상하게도 그 과정이 힘들다고 느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준비하는 이 시간이 그저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준비 과정 속에서 동방박사와 황금, 유랑, 몰약, 그리고 마귀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예수님의 탄생을 더 깊이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팀원이 각자 맡은 역할을 미루지 않고 성실히 감당해 주었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 주는 과정 속에서 팀원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로 더욱 단단히 세워져 갔습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이 되었고, 전날 새벽까지 이어진 세팅으로 모두가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행사 당일 처음에는 다소 긴장도 되었지만, 그 긴장과 피곤함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망원시장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팜플렛을 나누어 드리며,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내가 생각해 왔던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50명이 넘는 다양한 분들이 방문해 주셨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직접 나누어 드린 팜플렛을 통해 찾아오신 분들을 마주했을 때의 감정은 잊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25년 동안 다녔지만, 그날 처음으로 ‘내가 선교를 하고 있구나’라는 감각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였고, 우리의 마음과 순종만 있다면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주님의교회와 교역자분들, 공간대여를 도와주신 '모을' 사장님, 먼 망원동까지 와주셔서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청년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제 팸플릿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박하준 청년 / 청년부

박한준 청년 / 청년부



감사 속에 사역의 한 걸음을 마칩니다

주님의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으며 달려온 6년이 참 빠르게 지났습니다. 처음 부임하던 날의 설렘이 생각나고, 특히 코로나 기간에 함께 드렸던 예배의 감격과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눴던 뜨거운 기도와 교제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부족함 많은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간절한 기도로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윤경수 목사



그동안 주님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부족한 목사를 사랑과 기도로 품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각 봉사와 교제의 자리에서 함께했던 모든 시간은 제 목회 여정 속에 큰 은혜와 배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담임목사님의 지도와 성도님들의 격려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교회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안에서

이대혁 목사



답사

감사와 축복의 마음으로 드리는 답사

지난 6년의 시간 동안 교회를 향한 두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보이지 않는 수고와 묵묵한 섬김으로 공동체의 여러 자리들을 채워 주셨던 그 발걸음들을 성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순간에는 함께 웃어 주시고, 어려움의 시간에는 앞장서 기도하며 동행해 주신 사역은 우리 교회에 큰 은혜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늘 성실함으로 본을 보여 주셨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양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수고해 주신 두 목사님의 헌신은 결코 작지 않은 열매로 남아 우리 공동체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잠시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 보내는 안식년의 시간이 그동안 쉽 없이 달려온 사역의 무게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숨을 고르며 회복과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그리고 일상의 작은 쉼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 하심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안식년 이후에 다시 시작될 사역의 길 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다듬어지고 준비된 시간들이 다음 사역을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되어, 더 깊고 넓은 사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안식년의 여정과 앞으로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글함글

사임인사

주님의교회 영어예배를 섬기고, 이제 콩고민주공화국 선교를 위해 떠나는 김지민 목사입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저는 다시 한 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특별했던 이유는 이곳에서 만났던 모든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부족한 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역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함께한 시간들을 통해 저는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제 마음 깊이 간직한 채, 저는 주님의교회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품고 선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부르심 앞에서 있지만, 이곳에서 함께 드렸던 예배와 그 가운데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제 삶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형제요 자매이며, 같은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만남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서의 기쁜 재회를 소망하며 이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김지민 목사



부임인사

주님 안에서 함께 걷는 새로운 여정

반갑습니다! 새해에 부임하는 김요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7년 만에 주님의교회에 다시 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교회 청년부에서 전도사로서 청년들과 함글함글하며 목사 안수를 받은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 이 순간은 마치 모교회에 온 것처럼 행복하고 설렐니다. 이제는 부목사로서 장년 성도님들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교회와 세상의 주님이심을 증언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발맞추어 제자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을 예비해 주셨으니 이제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많은 중보 부탁드립니다.

김요한 목사 / 8교구



안녕하세요. 주님의교회 목양실 목회비서를 담당하고 있는 이왕현 목사입니다. 주님의교회에 온 지 어느덧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담임목사님과 선후배 목회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과분한 도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주님의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가정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담임목사님과 많은 선배 목회자분들의 배려로 '사랑나무' 부서를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사랑나무의 매 시간 예배를 통해 먼저 은혜받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나무는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는 표어로 2026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사랑나무 예배가 항상 주 안에서 뛰놀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사랑나무 부서에서 '함글함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현 목사 / 사랑나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교회 청소년숲 총괄 부목사로 부임한 김계원입니다. 건강하고 귀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청소년의 곁에 머물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그 시간을 견디며, 아픔 속에서도 성장의 열매를 함께 맛보는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역자로서 있겠습니다. 또한 사역의 경험이 풍성하고 인격적인 선생님들과 교역자로부터 겸손히 배우며, 청소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김계원 목사 / 청소년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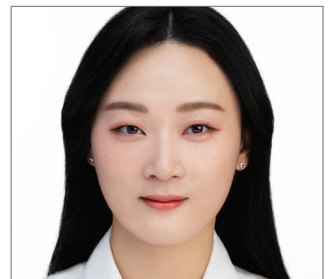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유아부와 아기정원을 담당하며, 주님의교회 유아숲 사역에 함께하게 된 김가현입니다. '성어중 형어외(誠於中 形於外)'라는 말처럼, 마음에 정성스러움이 있으면 어떤 모양으로든,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아이들과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라나도록 주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며 섬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가현 전도사 / 유아숲



샬롬! 주님의교회 하임 아기부를 섬기게 된 유가람 전도사입니다. 먼저 주님의교회에서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출산과 육아로 잠시 멈췄던 사역을 다시 시작하며 걱정이 앞섰지만, 첫 부임 예배를 드리며 그동안의 걱정이 얼마나 무색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헌신적인 선생님들과 사랑 가득한 부모님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하임 아기부를 얼마나 사랑해주실지, 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 축복이 내려질 때 은혜의 통로가 되어 힘써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가람 전도사 / 유아숲



안녕하십니까! 새로이 유아숲 유치부와 커비스를 담당하게 된 조규완 전도사입니다. 저는 25년 5월에서 7월까지 대체사역으로 잠시 주님의교회에서 사역하였습니다. 그 당시 경험한 주님의교회는 정겹고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함께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은 도움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셨고, 부서 선생님들께서는 사랑과 헌신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겠다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부임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하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하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 전도사 / 유아숲



안녕하세요. 주님의교회 청소년숲 비전트리 고등부에 부임하게 된 이동길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동체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전트리 고등부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싶습니다. 기쁨의 순간뿐 아니라 고민과 눈물의 시간에도 함께하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께 배우며 겸손히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동길 전도사 / 청소년숲



(사)섬김과나눔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주어진 곳에서 동행하는 행복

주님의교회와 (사)섬김과나눔은 2025년 성탄절을 맞아 ‘생명사랑·이웃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희망상자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2월 22일(월), 거여동과 마천동에 거주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참여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김화수 담임목사의 말씀과 박준범 목사의 기도로 행사를 시작했다. 이후 4개 팀으로 나뉘어 총 153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희망상자를 전달했다.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희망상자 나눔에는 김화수 담임목사를 비롯해 세 명의 교역자와 (사)섬김과나눔 생활지원팀 및 사무국 지원팀, 장로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희망상자를 전하는 과정에서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성탄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한 가정에서는 좁은 계단 아래 작은 방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환우를 위해 김화수 담임목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환우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받았고, 담임목사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그 장면을 지켜본 봉사자들 역시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기도의 자리에 동참했다.



또한 희망상자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주님의교회가 지속적으로 베풀어 온 사랑에 감사를 전하며 감사헌금을 드리기도 했다. 이는 받는 이와 전하는 이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동을 전하는 순간이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봉사자들은 드러나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과 동행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섬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사)섬김과나눔 생활지원팀은 매달 153가정에 생필품과 함께 사랑을 전하며 지속적인 이웃 돌봄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주님의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성탄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함글함글

길가에교회
20주년 기념 예배

뿌리에서 동행으로, 은혜의 20년

주님의교회 성도들, 길가에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예배 참석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최근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길가에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길가에교회를 인도하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5년, 주님의교회에서 시작된 길가에교회

길가에교회는 2005년 주님의교회에서 분립·개척되어 세워진 교회로, 설립의 시작부터 주님의교회와 깊은 영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 길가에교회 홈페이지 연혁에도 이 같은 출발 배경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두 교회가 단순한 교제 관계를 넘어 복음 안에서 탄생과 성장을 함께한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주님의교회는 길가에교회의 개척과 초기 정착 과정 가운데 기도로 동역하며, 한 몸 된 교회의 연합을 실제로 실천해 왔다.

계속 동행하는 교회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서로의 사역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동행으로 이어져 왔다. 길가에교회가 새예배당을 지은 2022년 5월에도 주님의교회 김화수 목사가 설교자로 섬겼다는 것은 두 교회가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중요한 신앙의 순간마다 서로를 축복해 온 관계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주님의교회와 길가에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개척-성장-비전의 과정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걸어온 동역 교회로 자리해 왔다.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 감사와 비전을 함께 드리다

이번 20주년 감사예배는 길가에교회가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예배로 드려졌다.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길가에교회가 지역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 온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었다.

특히 예배 가운데서는 ‘지난 20년간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다음 세대와 제자 양육을 향한 비전’, ‘지역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함께 세워 가는 교회의 길

길가에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예배 참석은 주님의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연합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한 교회에서 시작된 믿음의 씨앗이 또 다른 교회로 세워지고, 다시 서로를 축복하며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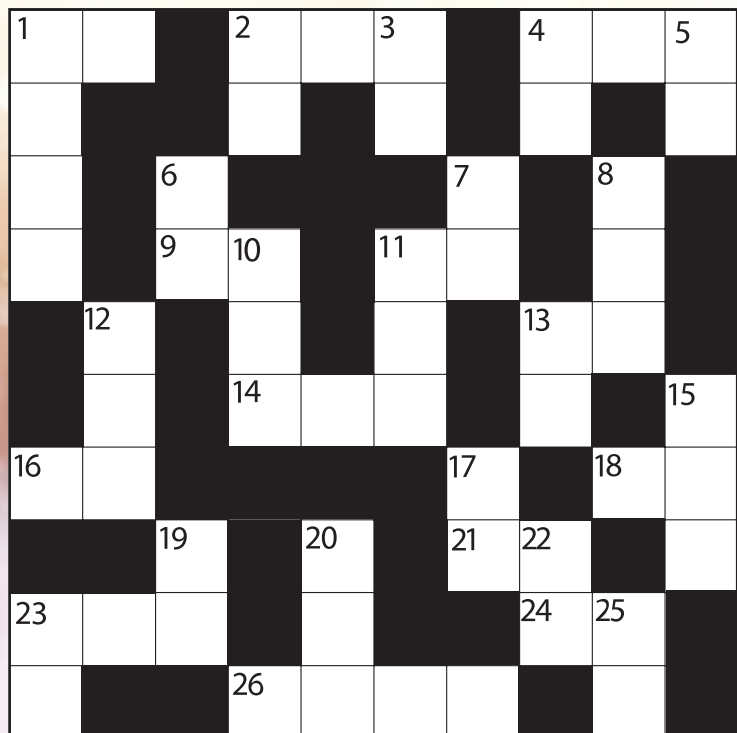
주님의교회는 앞으로도 길가에교회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동역을 이어갈 것이다.

함글함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빌립보서 편

이번 호는 신약의 열 번째 권인 <빌립보서> 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서기 62년을 전후하여 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에베소서 편 정답



가로 힌트

1. 다메섹에서 회심하여 선교의 길에 나선 사람.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다. (빌 1:1)
2.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는 사람. 바울은 자신과 함께 선교의 길을 나선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다. (빌 4:3)
4. 로마 관료들이 거주했던 공간. '관장'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빌 1:13)
9.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 믿음의 조상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다. (빌 4:6)
11. 전적으로 순수함. 순수하고 완전함. (빌 2:15)
13. 어떤 상황이나 구조가 점점 나아짐. 나아지기 위한 변화나 발전을 말하기도 한다. (빌 1:25)
14. '어떠하게'의 준말. 방법이나 방식을 물어보기 위해 쓰는 부사이다. (빌 3:11)
16. 국가나 도시와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 단순한 구성원이 아니라 보통 민주적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빌 3:20)
18. 애뜻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함. 남녀간의 애정뿐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에서도 쓰이는 말이다. (빌 4:1)
21. 원한이 맺힐 정도의 적이나 반대 세력. (빌 3:18)
23. 성경에서 로마 황제를 일컫는 칭호. 본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유래된 말이다. (빌 4:22)
24. 행위의 기준이나 사상이 높고 훌륭함. (빌 3:8)
26. 빌립보 교회의 신자. 바울의 동역자였다. (빌 4:3)

세로 힌트

1. 유대의 3대 분파 가운데 하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빌 3:5)
2. 계급이나 등급이 같음. 서로 수준이나 계급의 차이가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빌 2:6)
3.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 어려운 사람을 가엽게 여겨 배려하고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빌 2:1)
4. 옳음과 그림. 옳고 그림을 가리는 일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빌 2:14)
5. 원한이 맺힐 정도의 적이나 반대 세력. (빌 1:28)
6. 질투의 다른 말.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뜻한다. (빌 1:15)
7. 어떤 일이 발전해 나아가는 것. 예측이나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빌 1:12)
8. 마게도나의 주요 도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2세가 점령한 후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 (빌 4:15)
10. 오히려. 예상과는 다를 때 쓰는 부사이다. (빌 1:12)
11. 빌립보 교회의 성도. 바울의 동역자였다. (빌 4:2)
12. 아랍의 막내 아들. 이 사람의 후예를 이르는 명칭이기도 하다. (빌 3:5)
13. 거짓이 아닌 사실. 마음에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빌 1:10)
15. 헬라인이었던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초기 기독교인. 바울의 동역자였다. (빌 2:19)
17.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줌. 나아가 인류를 죽음과 고통, 죄에서 건져내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빌 3:20)
19. 교회의 일을 맡아 하는 직분. 사도를 돕고 교회의 사무를 맡으며 구제금을 나누는 일을 한다. (빌 1:1)
20. 겉보기만 좋게 꾸미는 일. 외식이라고도 한다. (빌 1:18)
22.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애를 씀. 주로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느낄 때 쓰는 말이다. (빌 2:22)
23. 어떤 것이 그릇이나 한도에 꽉 찬 상태를 뜻하는 부사. (빌 1:11)
25.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것. 주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 (빌 3:8)

각각의 부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모아 하나의 함글함글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한 사람이 모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듯 내년에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하나된 주님의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박수빈 청년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세월이지만, 2025년 마지막 남은 12월의 달력에서 점점 지워져 가는 숫자가 아쉬워지는 시간들입니다. 한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탄 주일에 겨울비가 내립니다. 2025년 마지막 함글함글 기사를 올리며 “아쉬움은 강물에 띄워 보내고 큰 은혜의 빛진 자답게 사랑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소서 저희들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염된 이 세상도 씻어 새롭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신형섭 장로

주님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표정을 담백하면서도 깊이 있게 담아낸 함글함글이, 우리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중한 공간에 마음을 모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호철 장로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함글함글 송년호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 번 ‘함글함글을 발행하는 일’의 무게와 은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함글함글은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지면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하고 서로의 믿음을 비추는 작은 창이었습니다. 글을 써 주신 분들, 사진 한 장을 내어주신 분들, 묵묵히 읽어주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함께 만들어 주신 공동의 기록입니다. 그 모든 손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 서로의 삶을 귀히 여기는 교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정직하게 기록하는 함글함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이 지면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진원 안수집사

이 지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과 사랑의 대상들을 위해 힘써 일하신 분들의 아름다운 수고가, 주님의 때에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오지연 디자인간사

‘함글함글’을 통해 주님의교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역과 경험들을 나눈 지난 일 년은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글함글’이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함글함글’을 섬겨주신 분들,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 정성껏 만든 지면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태욱 목사

함글함글 편집인으로서 보낸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깃든 기쁨과 슬픔을 지면에 담아내며,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는 세밀한 위로와 사랑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 따뜻한 소통의 통로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이 귀한 나눔이 내년에도 주님의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임익수 장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1:3) 함글함글을 통해 참 많은 얼굴을 만났습니다. 그 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고, 그 사이 저의 작은 역할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고 있음에, 그리고 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민기 안수집사

십자말씀이 509호 정답자: 정현정 집사(5교구)

십자말씀이와 함글함글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씀이는 함글함글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글함글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일정

12/31 (수) 송구영신예배
1/4 (주일) 신년감사주일, 성찬주일
1/5 (월) - 10 (토)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알립니다

1.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자녀축복기도 신청’

기간: 12/31(수)까지
방법: 구글신청서(문자나 카톡 링크 발송)
문의: 각 부서 담당교역자

2. 차량 등록 및 주차스티커 부착 안내

교내 출입하는 모든 교회 차량은 반드시 교회 사무실에 등록하고 교회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스티커 발급처: 교회 사무실(1층)
문의: 오상훈 안수집사(010.9075.4305)
※차량에 연락처 필히 기재

3. 전화상담실 겨울방학

기간: 12/23(화)~1/30(금)
문의: 김숙연 권사(010.4239.7715)

4.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일시: 2026/1/13(화)부터 발급
방법: ① 홈페이지 직접 발급(온라인 기부금 납입증명서)
② 홈페이지 발급 신청(온라인 사무실)
③ 사무실 직접 방문 접수(전화신청 불가)
문의: 임미숙 간사(02.416.5181)

모집합니다

1. 주방봉사자

시간: 8:00 ~ 10:00 (1부 국수팀)
12:00 ~ 2:00 (마무리팀)
문의: 임익수 장로(010.3758.6162)

3. 주차안내부원(7명)

1부(06:30~08:30): 2명
2부(08:30~10:30): 2명
3부(10:30~12:30): 3명
문의: 오상훈 안수집사(010.9075.4305)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화~금)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